지원참고표 믿지 말고 대학별 모집요강 살펴야

정시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

대학별 환산점수 계산 후 지원 여부 따져봐야
모집인원 총괄표 참고 단위별 선발인원 확인을
수능점수·학생부 반영비율·가산점 등도 체크

본격적인 정시 시즌이 시작되면서 수험생들도 분주해졌다. 본인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최고의 결과물을 얻기 위한 입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원참고표'를 무조건 믿지 말고, 대학별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원참고표는 '참고'만**=16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대부분 수험생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입시자료는 지원참고표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 요긴하게 쓰이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지원참고표는 대학별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수능영역별 반영비율, 가산점 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합산점수로 만들어진 자료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대학별 기준에 맞춰 산출된 대학별 환산점수를 계산한 뒤 지원 여부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대학별 모집요강 체크**=지원참고표를 통해 지원 가능한 대학을 1차적으로 넓은 범주에서 선택한 후, 세부적으로 대학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대학별 모집요강이다.

각 대학별 모집요강 분량이 방대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실제 수험생이 참고해야 할 부분은 일부다. 모집요강 앞쪽에 있는 모집인원 총괄표를 참고해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을 확인하는 게 좋다.

다만, 선발인원은 추후 수시 이월로 변경될 수 있어 그 시기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살펴봐야 한다. 이는 수능 점수와 학생부의 반영비율을 뜻한다. 수능 100%로 선발하는지, 학생부 반영비율은 얼마인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 수능영역별 반영비율도 확인해 각 영역별 유형은 어떻게 반영하는 지 등을 점검하고, 가산점도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다.

◇**대학별 환산점수로 지원가능 여부 판단**=단순합산점수를 통해 넓은 범주의 지원가능 대학을 찾아보고 대학별 요강을 확인했다면, 실제 지원 시 적용되는 대학별 환산점수로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가산점 등이 포함되고 대학별 환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지원대학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학별 환산점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산점수로는 성적이 높았던 수험생이 대학별 수능 반영방법과 환산방법에 따라 점수가 역전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환산점수를 확인했으면 마지막으로 지원 전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산점수만 가지고도 대략적인 지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대학에 따라 점수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은 1점 안에 50명의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대학은 1점 안에 10명의 학생이 있을 수 있어 1점의 비중이 다를 수 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정시 지원을 준비할 때 다른 수험생들의 지원패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슷한 성적을 가진 수험생들이 가·나·다군에서 어떤 대학, 학과에 지원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장 김혁종 광주대 총장

"지역사회 성장·혁신위해 소통하고 혁신 주체들 상생 협력 구축 필요"

"인재양성 등 지역 신성장 산업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산·학·연·관 협력 발전 모색"

광주·전남 총장 지역사회 포럼에서 인사말 하는 김혁종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우리도 이제는 지역발전과 혁신을 위해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인 광주대학교 김혁종 총장은 광주·전남 총장 지역사회 포럼 인사말을 통해 "지역에 맞는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광주·전남 총장 지역사회 포럼을 개최하게 됨을 매우 감사드리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지역의 미래산업과 대학'을 주제로 지난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총장 지역사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김혁종 광주대 총장을 비롯한 지역대학 총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관내 공공기관장과 출연기관장, 경제단체장, 광주전남기자협회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포럼은 지역발전을 위해 광주·전남지역 대학총장과 자치단체장, 경제단체장 등 지역 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진행한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혁종 총장은 "지역 신(新)성장 산업의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산·학·연·관이 협력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며 "최근 자치단체와 대학, 산업체를 연결하는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만큼, 광주·전남 지역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혁신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는 첫 걸음으로서 뜻깊은 시간이 됐다"면서 "지역 혁신 주체들이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자"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관광서비스 인력양성 교육

관광전남 활성화 힘 보탠다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전남지역의 관광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에 앞장서며 '관광 전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동강대 호텔관광과(학과장 김관용)는 올 8월부터 11월까지 강진군청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프로그램으로 '관광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호텔관광 전문가, 골프캐디 전문가, 칵테일·바리스타 등 서비스 전문가 과정이 개설돼 호텔관광과 교수진과 각 업계 전문가들이 관광산업 현황과 식음료 및 서비스 매너 교육의 이론을 비롯해 호텔 및 골프장, 카페 등에서 현장밀착형 학습을 진행했다.

특히 교육생 가운데 2명은 취업에 성공했고 8명은 커피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경청올레'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2019년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청올레'를 진행했다. 이날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생과 멘토 교사는 지난 1년간 느꼈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장석웅 도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동신대 이은경 교수, 한국언어재활사협회장 선출

"열악한 1만 2000여 언어재활사들의 권익 향상과 함께 전문성을 높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이은경 교수가 제5대 한국언어재활사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장 선거를 통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0년 1월1일부터 2년이다.

이 교수는 '상식이 통하는 협회', '회원이 으뜸인 협회', '지부가 중심인 협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확보에 성공했다.

특히 "외형성장만을 외치며 달려오는 동안 겹겹이 쌓인 협회 운영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소통, 공감, 공정, 원칙이 보편화되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미래 구상이 대의원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이 교수는 "언어재활사들의 권익보호, 복지증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 언어재활사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등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는 2012년 언어재활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된 이후 1만2000여 명의 언어재활사들이 등록·활동하고 있다. 현재 전국 53개 대학과 대학원에서 매년 1000여 명의 언어재활사가 배출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중국어학과 2학년 전원 '中 상하이대' 유학

내년부터 24명 2년 유학

호남대학교 중국어학과(학과장 이정림) 2학년 학생 24명 전원이 내년부터 중국의 명문대학인 상하이대학에서 3, 4학년 공부를 위해 2년 여의 유학길에 오른다.

중국어학과는 최근 경영대학 1층 소강당에서 학과 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2복수학위제' 취득을 위해 중국 유학길에 오르는 2학년생 24명에 대한 환송식을 가졌다.

2018학년도에 입학한 이들 학생들은 호남대와 중국 상하이대학교가 맺은 '2+2 복수학위제'에 따라 1· 2학년은 호남대학교에서, 3·4학년은 중국상하이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한·중 두 대학의 졸업장을 모두 받게 된다.

지난 2년 동안 중국유학에 필요한 HSK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이들은 졸업 후에 중국어에 능통한 현지 전문가로 활약하게 되며, 상하이 및 홍콩 현지인턴십 과정을 통해 해외 취업에도 도전하는 등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